국가보훈처에 5·18, 4·19는 없다

소식지 '나라사랑' 70% 이상 6·25 참전 행사 홍보

5·18 기념식 단순 행사로 소개…올 주요 업무서도 배제

국가보훈처가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꽃피운 국가기념일인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홀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대부분 6·25전쟁과 서해수호기념행사 위주로 소개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도 보훈외교와 호국정신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와 국가보훈처의 편협한 역사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독립, 호국, 민주화 관련 기념 추모 행사를 통해 민족정기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각종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보훈처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은 3·15 의거,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현충일, 6·25전쟁 등 10여 개다.

하지만 호국 행사와 달리 보훈처의 민주화 관련 기념 추모 행사는 소홀한 상황이다.

보훈처가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 '나라사랑'(16페이지)만 보더라도 70% 이상이 6·25전쟁과 참전용사 관련 기념 행사 위주로 제작·배포되고 있다.

보훈처는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달 62만 부의 소식지를 발행,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유관단체 등에 보내고 있다.

실제 이달에 발행된 제852호에 '6·25 전쟁영웅 선정패 수여식'과 '영연방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가 1·2면에 스트레이트와 인터뷰 기사로 도배돼 있는 것과 달리 지난달 열린 제56주년 4·19 혁명 기념식은 스트레이트 기사로 언급만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호 2면에 단순 행사 소개 기사로 게재됐고, 2014년에는 6월호 2면 아래에 묻혔다.

또 매달 보훈단체 소개기사와 6·25전쟁 기획기사, 박승춘 처장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실린 것과는 달리 민주화 단체와 관련 행사 소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보훈처의 2016년 업무계획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훈처가 올초 발표한 4대 주요 업무는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 'UN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보훈외교 강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확산' 등으로 사실상 6·25참전용사와 호국정신 확산에 치중돼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 사업은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 참전명예수당 인상,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은 서해수호의 날과 호국보훈의 달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특정 기념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호국 정신 확산' '보훈 외교' 등이 올해 중점 과제고, 문체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취재해 세계에 알린 외신기자들이 16일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팀 셔록, 브래들리 마틴, 노만 소프, 도날드 커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세계사에 남을 교훈 되길"

당시 활동 외신기자 4명 옛 도청 등 항쟁현장 방문

"5·18이 한국과 세계에서 잊히지 않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5·18 민중항쟁의 증언자 외신기자 4명이 16일 광주를 찾았다. 이들은 옛 전남도청과 광주YMCA,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옛 가톨릭센터), 망월동 5·18 구묘역 등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당시 참혹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또 대학생, 시민들과 만나 5·18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브래들리 마틴(미국·더 볼티모어 선), 노만 소프(미국·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도날드 커크(미국·시카고 트리뷴) 등 80년 5월을 목격한 외신기자 3명과 한국 군대의 5·18 개입에 미국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린 팀 셔록(미국 저널 오브 커머스)은 이날 전남도청 별관 앞에서 "1980년 5월 희생된 분들과 함께 자리에 다시 선 것이 영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팀 셔록을 제외한 외신기자 3명의 광주 방문은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브래들리 마틴은 옛 경찰청 건물로 이동 중 "이곳에 시신 15구가 놓여 있었다"고 당시 현장을 선명하게 기억했고, 노만 소프는 "위협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이 우호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팀 셔록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당시에는 미국이 군부를 도왔지만 현재는 한국을 돕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상원 열사가 숨지기 직전 마주했던 브래들리 마틴은 "최후의 투쟁 속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윤상원은 정말로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지만 비극이 일어났고, 그 비극을 취재하는 게 우리의 의무였다"고 당시 취재 배경을 설명했다.

외신기자들은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노만 소프는 "이번 방문 중 전두환이 사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그것은 루머로 결론났다"며 "전두환의 실제 사과와 함께 누군가는 5·18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팀 셔록도 "실제 5·18을 만든 인물은 전두환"이라고 밝혔고, 도날드 커크는 "모든 책임은 전두환에게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5·18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래들리 마틴은 "광주가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집어넣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날드 커크는 "광주가 폭력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5·18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말했다.

외신기자들은 이날 오후 기록관에서 열린 '5·18 내·외신기자 초청 시민과의 생생 토크'에 참석해 80년해직언론인협회, 대학생, 시민들과 함께 5·18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36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5·18 역사 왜곡 폄훼세력 엄단해야"

80년해직언론인협 기자회견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세력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은 1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할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서조차 광주민중항쟁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숨지게 한 계엄군 사진과 용어가 사라지고, 사실 관계가 편향되게 기술된 것 등을 보면서 크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80년 5월 신군부의 폭압적 만행을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우리들은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왜곡이나 폄훼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역사의 진실 앞에서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직기자들은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항쟁 정신'은 전 세계 곳곳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힘이 되고 있다"며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 정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 왜곡 세력에 대한 엄단 ▲이명박 정권 이후 해직된 MBC, YTN 등 언론인들의 현장 복귀 ▲언론 탄압 종식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병유·송정민(CBS), 유숙렬·고승우(합동통신), 김준범·전택원(중앙일보), 박동녕·이회찬(KBS), 박화강·손정연(옛 전남매일신문) 등 해직언론인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옛 가톨릭센터)은 80년 당시 30여명의 기자들이 양심선언을 했던 곳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6일 광주 5·18 구묘지에서 열린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추모식에서 주홍 작가가 힌트페터 자화상을 미망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에 진실 알린 힌츠페터씨는 광주의 은인"

주홍 작가, 추도식서 미망인에 초상화 전달

"광주 은인에게 광주시민으로서 꼭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16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구묘지에서 열리는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추모식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주홍(여·48)작가가 미망인 엘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79)씨에게 힌츠페터 초상화를 전달했다.

주씨는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당신은 아는가! 518, 그 위대한 연대'를 기획하며 힌츠펜터에 대해 알게됐다"며 "목숨 걸고 진실을 해외에 알린 기자 정신에 감동 받아 오늘 유족이 광주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림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씨는 3일에 걸쳐 반짝이는 금빛 별을 찍어 모자이크기법으로 힌츠페터 상반식을 묘사한 10호 크기 작품을 제작했다. 달리 유가족에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몰라 무작정 작품을 들고 추모식에 참여했다. 다행히 소식을 들은 주최측 배려로 광주시민을 대표해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작품을 받아든 브람슈테트씨는 "힌츠페터를 기억하고 추모식에 초대해준 광주시민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며 눈물과 함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주씨는 "너무 고마워하시는 모습에 나도 감동을 받았다"며 "힌츠페터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광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 알린 재독교포 강제출국 인권침해"

5·18재단, 인권위에 진정서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독일교포가 5·18 기념행사에 참석하려고 입국하려다 강제 출국된데 대해 5·18기념재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16일 정부가 이종현(80) 재유럽오월민중제 준비위원을 입국 거부하고 강제 출국시킨 데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준비위원은 지난 13일 5·18기념행사의 하나인 '2016 광주 아시아포럼' 등에 참석하려고 5·18재단의 초청을 받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금지자'로 분류돼 만 하루 동안 억류된 뒤 강제 출국 됐다. 5·18재단은 "강제 출국의 정당하고 합당한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법무부 장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 입국거부 요구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5타경 21187	1	나주시 대호동 1020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105동 13층 1304호 59.98㎡	아파트	134,500,000 134,500,000	관리비미납있음
2015타경 21538	1	북구 매곡로86번길2, 1동 18층 1809호 59.31㎡	아파트	92,000,000 92,000,000	
2015타경 22401	1	북구 두암동 329 반석힐라 101동 4층 410호 31.77㎡	아파트	70,000,000 70,000,000	
	2	동소 329 반석힐라 101동 4층 418호 31.77㎡	아파트	70,000,000 70,000,000	
	3	동소 329 반석힐라 101동 5층 501호 31.77㎡	아파트	70,000,000 70,000,000	
	4	동소 329 반석힐라 101동 6층 603호 31.77㎡	아파트	70,000,000 70,000,000	
	5	동소 329 반석힐라 101동 6층 606호 31.77㎡	아파트	70,000,000 70,000,000	
	6	동소 329 반석힐라 101동 6층 607호 31.77㎡	아파트	70,000,000 70,000,000	
	7	동소 329 반석힐라 101동 6층 616호 31.77㎡	아파트	70,000,000 7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타경 21828	1	북구 두암동 928-1 188.6㎡ 북구 삼정로66번길 93 1층93.61㎡ 2층70.95㎡ 지하1층17.55㎡ 부속건물 변소 1.3㎡ 제시외 가추 등 24.6㎡	대 단독주택	143,901,270 143,901,27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수목포함
2015타경 21842	1	동구 산수동 401-20 215㎡ 동구 산수길 17-5 1층73.89㎡ 2층42.84㎡ 부속건물 창고11.7㎡ 변소0.81㎡ 제시외 창고 등 47.7㎡	대 단독주택	127,655,880 127,655,8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2015타경 22234	1	북구 용봉동 1230-10 155.4㎡ 북구 반룡로5번길 33 1~3층각72.90㎡[현황각88.5㎡]	대 다가구주택	259,745,100 259,745,100	일괄매각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8146	1	곡성군 곡성읍 신리 357-14 212㎡ 동소 360-3 208㎡[맹지,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대 대	9,598,400 9,598,400	일괄매각.비닐하우스존재
2015타경 22104	1	장성군 남면 마령리 318-1 274㎡[남측일부타인점유및사용]	대	43,840,000 43,840,0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2015타경 22654	1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산90 7027㎡[분묘수기소재] 동소 산90-1 213㎡[성도-광덕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편입보상금930,100원결정]	임야 도로	15,218,130 15,218,13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1/3허옥지분전부
2015타경 23169	1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269-2 67㎡ 동소 440-1 2609㎡[어린이공원저촉] 동소 441 31㎡	전 전 대	95,983,000 95,983,000	일괄매각.목록2,3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맹지
2015타경 63792	1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산125-3 784㎡[정숙자지분182분의9,진선경,진선미,진선숙,진선주,진선희지분각182분의6]	임야	11,592,000 11,592,000	맹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동소 산125-8 44㎡[목록1과지분동일]	임야	631,810 631,81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3	동소 산125-7 145㎡[목록1과지분동일]	임야	2,081,690 2,081,69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5타경 64009	1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345-8 246㎡[불법형질변경[묘지]된부분은매수인이원상회복의무를부담할수있음]	전	5,110,200 5,110,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맹지.현황임야.분묘수기소재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5타경 21958	1	북구 오룡동1110-33 애플지식센타엘로우동에이동8호 복수층1층47.28㎡ 2층64.05㎡	근린시설	137,000,000 137,000,000	
[자동차,중기]					
2016타경 224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남동길30번길 28, 101동 1001호[청암아파트] 등록번호:24두3830 차명:INFINITI Q502.2d 연식:2014	자동차	32,000,000 32,000,000	보관장소:광주서구금호동531하나로에프엔씨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6. 1.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6. 8.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1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영수